

제67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성경말씀대로의 신앙 이어가야



의장
임웅재 목사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임웅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9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동상에 쿨어 축제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동성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혼란에 빠진 한반도평화를 위해 기도

에 힘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산동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빌 2:5-11 말씀을 본론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중심의 교단에서 섬길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고 전하고 "금후와 지비, 헌신과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공적인 목회의 열매를 맺고 천국갈 때까지 목목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임웅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교단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임점명,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7차 정기총회 성료

제8회 전국사모 연합회 정기총회, 부총회장 임원모임, 제67차 총회장 임웅재 목사 취임예배 제67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첫 모임, 총회신학교·목

대원 2018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 목대원 2018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은퇴 보고 건이 보고 결의되었으며 67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

과 각 위원장이 각각 연임 또는 새로이 임명되었다.

교회성장국장에 홍현철 목사가, 평신도국장에 심재덕 목사가, 신학교리국장에 임형순 목사가 새로 임명

인준되었다.

기타사항으로 교육국 주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7월중 개최, 여교역자회 하계수련회 등 각종 여름철 수련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증경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가운데는 임원배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말씀 중심의 사역자 다짐

2018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임웅재 목사
목대원장

2018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7월 2일(월) 오전 11시 총회 신학교 3층 강의실에서 드려져 더욱 속에서 더욱 열에 불타는 목회대학원생들이 모여 교단 중진 목회자들로 부터 집중적인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각오를 다지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회대학원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고후 5:10 말씀을 본론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느라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잘 통회해 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계절학기 개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광고, 목대원 교수 김용덕 목



축도
김용덕 목사



대표기도
최병진 목사



사회
윤기석 목사

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교단 김용덕 목사의 기독교와 문화연구를 시작으로 최병진 교수의 '제사장나라와 하나님나라의 연속성 연구',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영적전쟁에서 승리 연구', 이은주 교수의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연구', 강태진 교수의 '실천 목회학 연구'가 5일(목)까지 3박 4일간 집중적으로 계속되어 큰 깨달음을 얻고 헌신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천국으로의 초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마 22:1~3, 눅 14:16~20)

조용목 목사

세상의 어떠한 초대라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 최고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며, 이러한 초대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사람은 심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초대를 받고 가까이 응하는 사람은 지극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최상최고의 초대는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기쁨을 하지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저주가 없고 밤이 없습니다. 이 큰 잔치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없었으면 준비될 수 없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잔치의 즐거움이 항상 있는 천국으로 인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에 불응하는 온갖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광계를 대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일에 집착하고 몰두하여 천국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미련의 극치입니다. 초대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의 대상으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구분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 가난한 자들이 있고, 고독하고 소외되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데나 장애가 없고 건강하여 활동에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몸이 병들고 장애가 생기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고통과 불편이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신부

과 형편이 아주 달라집니다.

넷째,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실천해야 할 임무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길과 산을 가로 나가지” 데려오라고 하였으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행동방향을 확대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오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먼저 교회를 통하여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신자로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복음 전도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한량없이 영화롭고 즐겁고 풍성한 큰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초대에 응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기독교의 본질을 버리고 피상적인 면만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양과 자선이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인 사람들, 교양을 함양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 끝에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는 말씀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은 모두 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전국사모연합회 제8차 사모정기월례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 다짐



윤금자
사모회장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윤금자 목사) 제8차 사모정기월례회가 지난 7월 9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 3층 성전에서 열려 교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신명희 사모의 사회, 수석부회장 이정화 사모의 대표기도, 부서기 전현진 사모의 성경봉독,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2:1-8 말씀을 본론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값비싼 나드향 유를 드린 마리아의 지극한 정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고 전하고 “교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헌신”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재무 김숙향 사모의 헌금기도, 총무 신명희 사모의 광고,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곧바로 회장 윤금자 사모 주재로 회의에 들어간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병역거부 처벌 환영, 대체복무제 우려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합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판결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되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

써 모범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병역 거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그 처벌의 수단이 징역형이 아닌 대체복무라면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만에 하나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고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 대의무를 허물아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가 군발 없이 군대에 가는 것은 분단 현실에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한반도 핵폐기와 평화정착 위해 기도

세기연, 제7차 ‘달라스’ 제8차 ‘오클라호마’ 기도회 개최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주최하고 미주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7차 달라스기도회와 제8차 오클라호마기도회가 지난달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됐다.

텍사스주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철 목사)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7차 달라스 기도회(대회장 정서영 목사, 준비위원장 심평중 목사)는 6월 25일 오후 8시, 국내의 교계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기총 공동회장 이대우 목사의 사회, 달라스 목사회 회장 조흥수 목사의 기도, 세기총 후원이사 김기태 목사의 창 32:6-12의 성경봉독, 세기총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의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 후에 KARC 증경회장 박동배 목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세기총

후원이사장 전기현 장로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KIMNET 상임대표 최일식 목사가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각각 기도하고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미기총 증경회장 최낙신 목사의 축도로 첫날 기도회를 마쳤다.

26일 오후 8시 시작한 둘째 날 기도회는 세기총 상임회장 심평중 목사의 사회로 미기총 총무 이종영 목사의 기도, 최유복 목사의 창 37:13-23의 성경봉독, 달라스 교협회장

이상철 목사의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의 설교, 세기총 공동회장 하효련 목사의 봉헌송 등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미기총 증경회장 임형태 목사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서울신대 교수 조갑진 목사가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미기총 증경회장 전영현 목사가 '미주 4,500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미기총 대표회장 황원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엄기호목사, 후보 교단 추천서 하자 보완

예장개혁신종연 총회(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명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기합78)이 기각됐다.

법원이가처분 신청의 이유가되는 엄기호 목사에 대한 교단추천서 하자"에 대해서 "엄기호 목사가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하자"를 보완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예장개혁신종연 총회는 지난 9월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명정지 처분' 신청



했다.

제24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엄기호 목사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서류교단추천서 미비를 사유로 한 차례 후보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후보 자격이 복권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3조 4항

(회원교단 추천) 위반인바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판사 이정민, 박수현, 허민)는 21일 △조건부 후보하락이 수리된 후 엄기호 목사가 소속 교단(기독교여의도)으로부터 임원회의 회의록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완했고 △이렇게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의 행위는 당원 부합과 판단할 정도로 현저하정의 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문제점 개선 촉구

길원평 교수,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 위배”

법무부가 발표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PA)>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보다 내용이나 분량이 대폭으로 늘어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교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한국교회인문화 논쟁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후진국형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정 부과전청사 앞에서 일인 시위 및 철야농성에 돌입해 제3차 법무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안에 들어 있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상태다.

길 교수는 몇 년 전 간암진단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인시위와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길원평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탈의실이나 목욕탕까지 들어갈 수 있다”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며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르다”며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인위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8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 만약 제3차 법무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길 교수는 “성평등 정책이 실행되면, 성에 대한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며 “남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전용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탈의실이나 목욕탕까지 남성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 출전이 가능해지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다”며 “남녀 구별이 없어져 오히려 여성들이 더 불편하고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길 교수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동성애 처벌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에 독재국가가 된다”며 “동성애를 나쁘다고 보는 사람의 입과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해서 그 생각을 틀어 고쳐줬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4월 오직예수시령선교회 대표 안현일 목사와 한국교회전지사랑연합회 회원들이 일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길 교수와 함께 기도했다.

한기보협, 제68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제13회 신학세미나도 함께 가져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6월 25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 14층 1강의실에서 제68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및 제13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동회장 조정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예장개혁신종회 이규상 목사의 기도,

로 한국에 제3의 부흥운동을 이끌어 내는 한기보협이 되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독교대한장로교장로회 박정자 목사가, '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단체)를 위하여' 예장개혁신종회 이예성 목사가 특별기도를,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도갑을 목사의 한글송, 예장 세계선교연합 총회장 이안나 목사의 한글기도,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법인이사 이의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학세미나는 신학위원회 위원장 김주상 목사의 사회로 제1강의를 '영계의 이중연계성'을 주제로, 예영수 교수가 제2강의를 '예계의 10가지 이적과 종말'을 주제로, 장한국 교수가 제3강의를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주제로 열린 강의를 했다.

한장총,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

민족과 한국교회, 가정과 사명 위해 기도



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채영남 목사(한장총 직전대표회장)는 전도서 4:9-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마귀는 분열을 확실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협력할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심지어 이단들은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임에도 오히려 단합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큰 장로교단들이 연합하지 못하여 힘을 잃고 있는 것을 지시하고 이기주의와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한국장로교 여성지도자들이 되어주기를 당부하였다.

성결대, 제35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총동문회장 윤기순 목사 연임



성결대학교 제35대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6월 21일(목) 오전 11시 성결대학교 제1관 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회의 순으로 순서가 진행됐다. 박광일

목사(총동문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공재영 목사(32대 증경 동문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윤기순 목사(총회장, 총동문회장)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막

10:35)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또 설교 후에는 총회, 학교 동문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기도 후에는 윤동철 목사(성결대 총장)의 환영사와 김종현(29대 증경 동문회장), 이강준(교단총무)의 축사, 나세웅 목사(30대 증경 동문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노희석 목사(27대 증경 동문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윤기순 목사(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김두성 목사(31대 증경 동문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서기의 회원점명을 시작으로 각종 보고와 임원 선거, 임원 교체, 신임회장 인사, 예산안 심의 등이 있었다. 한편, 총동문회장은 윤기순 목사가 직년에 이어 연임됐다.

로고스국제신학교 교수추대 감사예배

십자가 군사 양성에 앞장설 것 다짐



로고스국제신학교이사장 강말희 박사, 총장 양창부 박사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동신대학교 강당에서 교수추대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추대 감사예배는 대회원장 류한상 박사의 사회로 임덕근 목사의 기도, 김명길 목사의 특송, 미스바영성회복선교회 대표회장 계원만 목사의 설교순으로 진행됐다.

계원만 목사는 딤후 2:14-21절을 본문으로 한 '쓰임에합당한 그릇'이라는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추대 받는 교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복음의 일꾼"이라

고 강조하고, "참된 진리의 학문을 후학들에게 전수해 십자가의 군사를 양성하는데 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추대예배에서는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위하여' 김성호 목사가, '한국교회 회복과 목회자를 위해' 김용택 목사가, '학교발전과 사명, 해외선교와 파견교수 기정'을 위해' 김원준 목사가기도를인도했다.

교수추대 감사예배는 홍순현 목사 부부의 한글송, 계원만 목사의 봉헌기도 및 축도로 마무리됐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6월 28일(화) 방아진순복음교회(담임 성기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회장 이성석 목사의 사회로 총무 신홍섭 목사의 대표기도, 부회장 권점식 목사의 호 3: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회계 황용식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 회장 최영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안건을 토의한 후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였다.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7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한소망교회(부회장 이미순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가졌다. 여교역자들의 특별찬양과 함께 드린 예배에서, 회장 김병목 목사는 롬 12:2 말씀을 본문으로 '분별력이 있는 주의 종이 되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며 "WCC, 동성애 등, 세상문화와 풍속에 단호하게 대처하자"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지 순종하고,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영혼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노숙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로 복음전하기를 쉬지



않는 이진호 목사(새생명교회 은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이진호 목사의 헌금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회장 김병목 목사 주재로 월례회를 가진 후, 한소망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CBS주관 영화 시상회로 '신은 죽지 않았다 3탄'을 감동적으로 관람한 후에 자리를 옮겨 시원한 팔빙수와 뜨거운 커피를 함께 하며 화목한 교제를 나누고 부총회장 엄기철 목사(은혜와진리교회)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저녁식사를 한 후에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역자들이 되자”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7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예수사랑교회(담임 예정희 전도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

회로 부회장 이정진 목사의 대표기도, 오세준 목사의 성경봉독, 직전회장 김장수 목사의 마 9:35-3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처럼 삽시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총회와 지방회,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재무 육준수 목사의 회원점명과 재무보고, 총무·회계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및 회계보고 후, 기타 안건을 토의하고 우광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마음의 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길...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7월 2일(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40에 위치한 사뮈엘에임은나무교회(담임 표한자 목사)에서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서성영 목사(복된

교회)의 사회로 찬송인도에 이광우 목사(새생명교회), 대표기도에 김남순 목사(열매산교회), 성경봉독에는 장미자 목사(센교회), 목회자 사모일동의 특송순서가 있었으며, 회장 신동숙 목사가 호 10:12 말씀을 본문으로 '목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진정 마지막 때 하



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회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7월 이스라엘 단기선교사역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순서도 있었다. 이어 정세창 목사(안성은혜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행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지방회장의 진행으로 회무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회 여름수련회에 관한 장소와 일정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고 광고하였다.

그리고 사뮈엘에임은나무교회에서 손수 준비한 오찬으로 잔치국수와 풍성한 여름과일을 대접받았으며, 온 회원들과 함께 성전에서 교제와 사랑을 나눔으로 지방회 모든 행사는 은혜기운에 무사히 마쳤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i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생명의 말씀



엄기설 목사

· 교단 부총회장
· 은혜와찬양교회 담임

은혜에 대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자기가 너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지만 또 다시 넘어진 다음에 심각한 죄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은 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부분이 부족하네 하고 비꾸어 가자니 좀 더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솟으로 태어났습니다. 뉘는다고 해서 하얀 비누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락 그제 우리 육입니다. 육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죽었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육이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

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솟이 아닌 비누가 될 수 있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 강간, 도둑질 등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주를 놓치지 않을게요.”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며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분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모습이라면, 개전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이것을 지켜 그러면 사랑해 줄게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으신다면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만을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주 용기 있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래 추하고 약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죽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즉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서 좋은 부분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든 아름다운 부분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빌려 쓴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고 빌려서 받은 것입니다. 또 제게서 부족함이나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골 10:13)고 했습니다. 주를 부르는 것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주를 붙잡는 것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금 모든 시작이 실패하는 것은 기도 할 때 외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파도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으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이 아닌 오리나 거북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폐지나 그 어떤 것을 보았다 해도 그는 빠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다른 어떤 것을 보았다는데 있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인간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 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주를 부르세요. 꿈에서도 부르세요. 저는 암투병 생활 후 밤낮으로 주를 부르며 잠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주세요.

그렇게 주를 붙들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그저 밤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주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죄짓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어떻게 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당연한 거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그렇게 물들고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십시오. 주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한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이들 오직 예수를 붙들십시오.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놓치지 마세요. 돈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동 정

연세대 연신원 고위자과정 모집



연세대(총장 김용학) 연합신학대학원은 상담아카데미, 코칭아카데미, 설교자를 위한 성경아카데미 고위자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상담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12과목 3학기 과정이며 이수 후에는 김용학 총장 명의의 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명지병원 미션데이 9주년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은 ‘미션데이 비전워크’ 출범 9주년을 맞아 지난 7월 4일(수) 병원 대강당에서 비전축복조찬기도회(사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션데이 비전워크는 매년 7월 첫 주에 기념행사와 조찬기도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나사렛대, 발달장애인 학술제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재할자리 학부는 지난 6월 19일(화) 나사렛관 6층 패치홀에서 150여 명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학술제’를 개최했다. 학술제는 지적장애 혹은 자폐성 장애 학생 10명이 ‘기업분석’과 ‘자유주제’를 발표했으며 평가단과 재할자리학부 교수 3인의 공정한 심사로 평가를 받는 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잡지협회장 정경환



할천사 사장 정경환 목사가 한국기독교잡지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협회는 지난 7월 9일(월) 서울 강남구 총회 본부에서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회장은 서울신대와 평택대, 서울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로드랜드대 사회과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사법부의 독립성·고유성이 지켜져야 한다

대법관 몇 명이 바뀐다고 한다. 대법관은 실제 일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하급심에서 다뤄진 판결의 적법성 문제나, 사회 국가적인 중요 이슈에 대한 판결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정한 대법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많

다. 한 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한 명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측 변호인 단장을 맡을 정도로, 끝까지 통진당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이념과 성향의 대법관들이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니겠는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들을 법의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듯 보란 듯이 편향된 인사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

의 수반인 대통령 코드에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사법부 스스로 정치권력 견제의 장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국민들은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체의 인사들이, 어느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합리성에서 뒤지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와 같이 편향된 인사들로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진심을 가늠할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법무부의 불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규탄”

동반교연(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반연(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7월 5일 청와대 앞(효자치안센터)에서 법무부의 불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 집회를 가졌다.

국가법집서 확립에 가장 앞장 서야 할 법무부장관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중지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

정책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폭거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금, 병역 등의 의무는 국민만 부담하는데, 혜택은 불법체류자, 난민 등도 누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가인권정책을 미룰대로 바꾸는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회개헌특위자문단은 물론, 학자들의 논문, 여성단체 홈페이지, 동성애단체, 심지어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조차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식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성평등 정책이 무슨 본체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힌다.

2018. 7. 05
참부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성명서)

[성명서]

불법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국무회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또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법집서 확립에 가장 앞장 서야 할 법무부장관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중지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국회를 통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정책은 개헌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국가인권정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수립된 국가인권정책이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폭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원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에 공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편향된 특정 집단들과 18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어서 2018년 4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정책에서 2017년 계획은 사라지고, 갑자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는 20일에 고기간을 무시하고, 초안을 6일만 공개하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정부의 전체 부처가 향후 5년동안 시행해야 할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2017년 계획은 갑자기 사라진 가운데 편향된 특정집단들과 왜 졸속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국가인권정책이 권위있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

책에는 위헌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양성평등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에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매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정책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면, 세금, 병역 등의 의무는 국민만 부담하는데, 혜택은 불법체류자, 난민 등도 누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개헌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가인권정책을 이렇게 미룰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정책에 담긴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가 있자, 법무부 관계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용어는 모두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서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sex equality로서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이며, 성평등은 gender equality로서 사회역사적(구조·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양성’과 제11조 ‘성별’을 생물학적 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한가9, 2006.한미328)

만약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헌법개정 과정에서 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였을까요? 한국헌법학회나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사로잡혀 있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왜 성평등 개헌을 주장할까요? 성평등을 받아들이는 서구에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사용자를

함께 쓰는문제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무부 관계자들은 성평등 정책이 무슨 본체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정해야 합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79만 8천여 명이 서명해 참여하고 있는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법집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법집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책시행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 내용을 밝힙니다.

첫째,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특정단체들과 18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사죄하고,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제하라.

셋째, 법무부가 몰라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했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양자가 다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같다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현행 헌법에 맞지 않는 성평등 주장을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던 형사 처벌하려는 처벌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취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여섯째,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7. 5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목양현

이효상 목사 // 한국교회건강연구원

‘돌아온 탕자’ 그린 렘브란트와 김기창 화백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시의 중요한 장면이다. 복음서에 따르면 아들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의 구원을 바라

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다.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 반겨주었다. 자식의 나약함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매일 마중 나왔던 것이다.

그들이 포옹했을 때, 아들은 후회의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빌었다. 아들을 꼭 껴안은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좋은 옷을 마련하고 실크 옷자리를 잡으라고 했다. 이렇게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준다.

이 명장면을 화폭에 담아 전한 화백이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와 한국의 김기창 화백이다.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는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의 대표적 화가로 17세기 최대의 화가로 손꼽히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회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교 신자였다. 반면에 렘브란트의 외가는 가톨릭 신자로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종교적 배경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자랐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은 1667년경, 즉기 2년 전에 완성한 그림이다. 그의 마지막 대작으로 1766년 러시아로 팔려 오늘날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의 에르미타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두터운 신앙심에서 우리나라 것들로, 특히 종교화에 있어서 많은 걸작을 남겼다. 그가 남긴 작품 수는 유화·수채화·도판화·대생 등을 포함하여 2천여 점이나 된다.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조용한 친밀감을 보여준다. ‘돌아온 탕자’의 핵심은 아버지의 손에 있다. 이 손에 모든 빛이 모여 있고 이 그림의 다른 두 목격자들의 시선도 아버지의 손에 쏠려 있다. 그 안에 자비와 화해, 용서와 치유가 함께 담겨 있다. 아들 뿐 아니라 아버지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소경에 가까운 노인이 흐느끼면서 아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상처받은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화가 렘브란트는 티투스라는 아들 하나를 제외하고는 자식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으며, 티투스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런 렘브란트에게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서양화뿐만 보면 성화를 한국화로 완성시킨 화백이 있다. 그는 ‘돌아온 탕자’의 또 다른 그림의 윤보 김기창 화백이다. 6.25전쟁의 비극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작가가 1년여에 걸쳐 제작한 판화작품 ‘예수의 생애’ 시리즈중 하나이다. 6.25전쟁 당시 14후퇴로 처가가 있는 군산으로 피난 가서 처가의 창고 하나를 방으로 개조해 3년간 피난살이

를 했다. 그때 군산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 곤궁한 시절 윤보는 ‘예수의 일생’이란 대업을 완성했다. 어려서부터 목심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예수와 당시 등장인물, 배경을 모두 한국인과 한국 복식 등을 배경으로 바꾸어서 성경의 내용에 따라 29점을 그렸다.

윤보는 서울로 올라와 1954년 4월 임시로 꾸민 종로 화신백화점 5층 화랑에서 성화전(聖畵展)을 열어 이 작품들을 처음 선보였는데 그 독특한 ‘한국화’ 작업이 신선한 화제와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모든 연작의 배경은 조선시대.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예수, 초가, 기와집이 세밀의 한국화적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독교의 토착화, 한국적인 정서,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서 그만의 윤필과 구성 등에 있어서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보의 ‘탕자 돌아오다’에서도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외에 뒤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이 작품들은 예수의 일대기가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과 비슷하다고 인식한 작가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2천 년 전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국내로 설정해 한국화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윤보 김기창 화백은 서울 종로구 윤니동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8세 때 정미루스를 잃으면서 청각장애를 일으켜 정성적으로 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한글과 일어, 한문 등을 익혔고, 그림에 대한 재능이 일찍 발견되었다.

윤보의 어머니는 감리교 신자로 진영여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개성의 정화여학교 교사를 지낸 바 있는 신여성이었다. 김은호 선생의 문하생이 되어 본격적인 화가 수업을 한 것도 어머니의 배려 덕택이었다. 결국 이 그림들은 그의 어머니와 스승, 그리고 당시 한국에 처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인지 1952년 1년여에 걸쳐 그려진 이 그림 이후로 윤보의 작품세계는 편안하게 달라진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때 그 토착화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기독교의 경우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선교 방법으로서 토착화를 다양하게 시도한 바도 많았고, 특히 남미에서는 유럽과는 많이 차이나는 기독교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토착화된 기독교 예술의 모습 중에서 기존의 문화 속에 기독교가 얼마나 피고들었는지, 아니면 그지역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스며들었는지를 주목해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림 때 기독교 문화는 점차 확산 발전되어 간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영합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고혈압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떫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잼 또는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환돌 아로니아 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암동 8길 38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희 결혼114는 하나님께 이 사업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던 중 미혼 남,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것이 국내 선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을 받고 전국에서 고생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을 지사장님으로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사장 자격

-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사모님 ● 장로님, 집사님 ● 믿음의 형제, 자매

혜택

등록비 54만원(부가세별도) : 고객들이 부담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찾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음

- 남녀 매칭 문제 본사에서 전담 - 지사에서는 회원 등록만 전담
- 각 지역별 독점권 부여
- 지사 블로그 제작 지원
- 결혼 미팅파티 행사 지원
- 전국 기독교인 회원 보유
- 본사 새로운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특전 : 본사에서 전국 각 지사로 매달 공유 수당 지급

지사 모집 지역

서울시	성동구, 용산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시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시	지사 계약 완료
인천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시	서구, 남동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울산시	중동구, 남구, 북구
세종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상담진행중), 남양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상담진행중), 광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상담진행중), 원주시
충북	충주시,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상담진행중)
전남	목포시(상담진행중), 광양시(상담진행중), 순천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경북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양산시(상담진행중), 김해시(지사계약완료),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창군
제주시	제주시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예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예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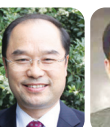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교문	교단총회장	지도교문	지도교문	부흥사회 회장	부흥사회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임동재 목사 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신재영 목사 새길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교문	지도교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신교회)	김상용 목사 (정주중신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새시명교회)	김동목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전주은혜와신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예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신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독일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신정리신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임기선 목사 (은혜와신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계영 목사 (새길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신복음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신복음교회)	정성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능동신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저전신복음교회)	최정식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윤혜영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김바울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신복음교회)	조성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호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신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형순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조은예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양은예 목사 (창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숙 목사 (동강신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신복음아름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신복음교회)	임명철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신복음교회)	정환우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김명주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서병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정예스더 목사 (예수함기교회)	김남수 목사 (받은빛교회)

회원

최승수 목사 (신복음침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북미주 한인 CBMC 시카고대회 열려

수석부회장에 배현규-부회장에 박화실 선출...제23차 북미주 한인 CBMC

북미주 한인 CBMC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BMC 미 중북부 연합회가 주관한 제 23차 북미주 한인 CBMC 시카고대회가 NET@WORK, 그물을 던져라'를 주제로 지난 6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웨스턴오페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장재중 회장(유니그룹)이 주강사로, 폴 현 은행장(필라델피아 모아뱅크), 이상백 회장(Orion 투지개발 대표이사), 김은영 교수(미 환경청 국가 환경 정책 및 기술 자문위원) 등이 특별강사로 초청됐으며 시카고, 북미주를 포함해 한국, 유럽, 아시아 CBMC 회원들은 물론 한국기독교실업인회와 외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근 북미주 총연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일터 사업자들이 모여 내 일터가 사업지임을 확신하고 성경적 경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상근 북미주 CBMC 총연합회장은 "많은 분들이 참석한 너무 귀한 대회였다. 특별히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월링'을 가진 분들이 모여 성대한 전초를 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비즈니스 업계에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 비즈니스 업계에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승을 한국 CBMC 중앙회장은 "시대 트렌드에



맞춰 앞서나감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창조적 리더십으로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마추한인 CBMC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2박 3일간 일정으로 특강, 주제 강의, 실천사항 토의, 간증, 교제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과 두 번의 만찬으로 진행됐다.

북미주 한인 CBMC 총연합회 회장으로는 김영균 북미주 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으로는 전 애틀랜타 회장 박화실 씨가, 수석부회장으

로 북미주 한인기독교실업인회 중부연합회 회장 배현규 씨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CBMC는 일터 사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으며 CBMC는 세계경제대공황이 시작된 1930년, 시카고에서 7인의 크리스천 실업인이 모여 최초의 모임을 시작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모토로 현재 한국 CBMC는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일은 사랑이라' 새사랑세미나 개최

조광동 목사 초청세미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치유부흥협의회가 주최하고 새사랑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조광동 목사 초청세미나'가 지난 6월 28일 (목)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새사랑세미나는 '화내지 마시다' (고전 13:4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주제로 성경적 사랑연구를 33년간 해온 조광동 목사(예장백석 증경총회장)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했다.

조광동牧사는 "새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며 사랑을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강의에 서두를 열었다.

조 목사는 이어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화'는 정신질환으로서 화를 내면 인격·순격·영격이 파괴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또 "인내와 수양으로는 성냄(화)을 해결하지 못한다. 화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며,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사랑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33년 넘게 사랑연구에 몰두해 온 조광동 목사는 예장백석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총재와 한민족세계로부흥협의회 총재도 맡고 있다.저서로는 '사랑의 힘', '새사랑성가' 등이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은 특권이 아닌 기본 권리입니다."

해외교육지원 캠페인 '월드비전 스쿨업', 샘 오취리와 다시 한번 손잡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와 함께 7월 2일(월) 해외 교육지원 캠페인 '월드비전 스

쿨업(School Up) 가나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월드비전 스쿨업은 해외교육지원 캠페인으로 취약

한 국가의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주는 캠페인이며 2018년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가나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난 우기 때 폭풍으로 무너진 아프리카 가나의 이코리다코 학교를 재건할 계획이다.

샘 오취리는 작년에 월드비전과 함께 572스쿨을 지은 바 있으며 572스쿨의 연장선으로 월드비전 스쿨업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가나의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 '정기저금'을 통해 모금에 참여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교육받지 못하는 해외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기 후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한 샘 오취리는 "교육은 특권이 아닌 기본 권리"라며, "아이들에게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계절학기

중국 하북사범대학 원어민 교수 초청 시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중국어학과는 7월 2일 ~ 8월 10일까지 6주간의 하계 계절 학기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계절 학기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지난 3월 27일 학술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중국 하북

사범대학의 네 명의 원어민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이외에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선교중국어학과는 중국의 대학과 복수학위제도를 갖추고 있는 등 여러 대학 간의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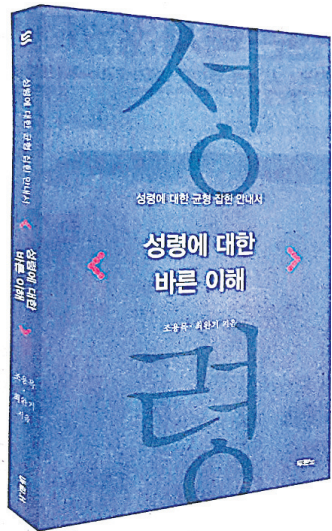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광동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 양육시설 아동 지원

기아대책과 ‘성장기 필요보장’ 보험료 전액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함께 7월 9일부터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소속 만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필요한 보장내용을 담은 단체보험상품을 새롭게 구성해 1년간 가입을 추진한다.

보험상품은 시설 소속아동, 청소년이 단체로 가입하는 형태로 입원, 통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을 기반으로 ‘입원일당(간병비 등)’, ‘수술 정액담보’, MRI/MRA 등 ‘비급여 담보’, ‘일상생활배상책임’까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장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 보험료는 1인당 9~10만원 수준이다.

보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비부터 배상책임까지 성장기에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된 상품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의 주최기관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사업은 새로운 수혜대상을 발굴해 보험업계 만이 추진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인 ‘생명존중’과 ‘상부상조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업계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주관기관인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은 “모든 아동들은 보호 받고 건강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설 내 모든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들의 보험가입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관계자들이 ‘생명존중 소외계층 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http://lifeckh.or.kr>)를 통해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기아대책이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존중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출연한 30억 원의 기금으로 약 1만 5,000명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출시된 ‘휠체어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기초수급, 한부모, 법정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중, 고등학교생 1,000명을 선정해 교육비 6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기 중에는 독거노인 등 고령층에 대한 겨울철 필수용품 지원 등 고령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 그리스도의교회 전국대회 8월 충주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미래상으로 제시할 것”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총회장 신조광 목사)가 주최하는 ‘2018 그리스도의교회 전국대회’ (대회장 신조광, 준비위원장 김생수)가 8월 13~15일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다.

‘성서적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행 2:43-47)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국대회에는 1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환원운동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지난 7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환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대회

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며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미국 존슨대학교 개리 위드만 총장과 이상열 교수, 한기재 목사, 오영석 목사, 박영환 선교사, 이승재 목사, 김기현 목사, 장남수 목사, 이동복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하며 교회페스티벌과 합동목사인수식 등 특별행사도 개최된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그동안 2007년 75주년 행사, 2008년 국제심포지움, 2016년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큰 대회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총회와 이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며 그리스도의교회가 더욱 부흥하는데 앞장서기로 결단하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말씀과 능력전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회 목사를 통하여 가족세트 전도를 소개 받고 12년 동안 비울전도 특공대라는 명칭 하에 목요일 두 주씩 호떡으로 교회 순례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마침 6월 29일 사성교회에서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되어 능력전도를 한 시간동안 했다. 상가에 예고도 없이 바로 들어가 영접기도를 하니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거침없이 말해주었다.

상가에 교패를 붙이는데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문설주에 쌓인 먼지 때문에 잘 붙지 않으니 그 사이 부인이 “우리 집은 제사 지내야 하니 떼어 주세요!”라고 하는 할라, 남편이 꺾끗 놀라 붙이는 모습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정도 반대하지 않고 한 시간에 상가 여덟 곳에 교패를 붙이고 11명이 영접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호떡 굽는데 6명 그 외에는 전도지와 음료수를 주면서 믿지 않는 자를 앉혀 놓고 영접시켰는데 능력전도는 전도지, 교패, 노트 영접 후 선물을 전하는, 간단하지만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전도다.

다른 교회 사정상 내가 섬기는 주산교회에서 4주간

전도하게 되었다. 아침 강의 후 대청도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가게 사장님을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한 후에 교패를 붙였다. 식사비는 조금 나왔지만 영혼구원과 축복패를 붙이는 것과는 비교 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교회로 돌아오면서 시장동로에서 한 시간 동안 11명을 영접하게 하고 일곱 군데에 교패를 붙였다. 어느 정육점에서는 부부가 영접을 했는데 옆에 노점상이 방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은총으로 잡념해져 갔다. 특히 두 가정은 자매가 하는 음식점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12년 동안 흥익병원 전도를 했지만 이제 다시금 정비하고 보환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전도에 자신감을 붙여 넣어 준 박영수 목사께 감사드립니다. 70이 가까이 오고 국가 유공자 2급의 장어가 있지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귀한 능력전도를 하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주산교회 송중수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평내순복음교회



CTS인터내셔널 찬양선교단 창단 및 후원회

국내 최고의 찬양 선교사들과 함께 CTS아트홀에서

선교의 부흥을 알리는 순수 선교 NGO CTS인터내셔널의 ‘찬양 선교단 창단 및 후원회 발족 기념 찬양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26일(화) 저녁 7시 CTS아트홀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400여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모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CTS기독교TV와 공동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찬양선교단 창단을 기념하고 후원회 발족을 기념하는 행사다. 본 콘서트에는 CCM계를 대표하고 찬양선교사로 활동 중인 김석균, 이정림, 김민석, 강성훈, 김관호, 김소임, 남궁송옥, 박지현, 손재식, 신현진, 조수진, 최혜진, 국악밴드썬 등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김석균牧사는 “오늘 이곳에 찬양 사역자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선교지’이며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선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온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와 영



혼 구원 사명을 위해 기도와 물질과 시간의 1%로 선교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시작을 알린 이번 콘서트에는 약 40여명의 목회자 VIP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무엇보다 좋은 직책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대기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전연이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특별예배 대행진’의 막을 올린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CTS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 창단 및 후원회 발족 기념 콘서트’는 7월 7일(토) 저녁7시, 8일(일) 저녁 12시 CTS기독교TV를 통해 방송된다.

백석대·백석문화대, 일본 하세가와호텔그룹과 MOU

백석대학교(총장 정종현)·백석문화대학교는 6월 29일(금) 오전 11시, 교내 본부동 12층 소회의실에서 일본 ‘하세가와 호텔앤 리조트(株谷川ホテル&リゾート)’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석대 정택현 대학혁신위원장, 백석문화대 정우진 행정부총장, 하세가와 호텔앤 리조트 아베 나츠키 사장(阿部 夏樹)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우수인력 양성 및 지원 △인턴십 및 해외취업자 일자리 제공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가자 해외취업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백석대 정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우리 졸업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와 비

전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하세가와 호텔앤 리조트 아베 나츠키 사장은 “우리회사는 기존 호텔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며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좋은 인재 양성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세가와호텔그룹은 ‘호텔업계의 낯은 가치관에서 탈피해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간다’라는 기업 모토 아래 일본 요코하마 등지에서 8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201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 :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 벧후 3:18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 제6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8년 7월 30일(월) ~ 8월 1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재길 21-4)
- 주 제 : '은혜' (벧후 3:18)
- 프로그램 : 레크레이션, Open mind, 경배와 찬양, 부흥회, 찬양콘서트, 특강, 공동체훈련, 장기자랑, 발표(간증)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국 각 교회 중 · 고등부
- 등 록 비 : 7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계좌송금(선착순 마감)
미자립교회는 상담 후 등록비 조정 가능함
- 접수 및 문의 :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7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하나(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교문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회장



임웅재 목사
교단 총회장
신정리순복음교회 담임

주요 강사



임웅재 목사
교단 총회장
신정리순복음교회 담임



김인찬 목사
중경총회장
청신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총무
새김침교회 담임

대회본부장



조선남 목사
교육국장
대림벤엘교회 담임

진행위원



오세준 목사
순복음감동교회 담임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변원식 목사
청조교회 담임



권승철 목사
남원중앙교회



고대운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준비위원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저출산 문제 극복 한국교회 역할 크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 미래로!’ 세미나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 제4차 세미나가 지난 6월 22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 미래로!’란 주제로 열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과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인구절벽과 출산을 급감한 현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저출산의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의 전환에서 찾고자 준비됐다.

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우리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우선하는 가족친화적 사회로 전환해야하며, 이러한 가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아닌 민간(특히 종교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기성세대가 이제는 취업, 결혼, 출산 등 청년세대의 절망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과 그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시킬 의무를 국민적 운동 차원에서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이형규 박사(송신대 초빙교수)의 사회로, 임예슬 시무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과 차성란 박사(대전대학교 교수, 아동교육상담학과), 김성건 박사(서원대학교 명예교수, 사회교육과)가 각각 발표했다.

차성란 박사는 “2018년 오늘의 저출산 정책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돌봄정책의 전체적인 서비스체계보다는 현 시점에서 자녀돌봄에서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차 박사는 자녀돌봄 환경과 관련,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 영유아 및 초등생들의 틈새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사업운영의 확대 필요성, 가족친화제도 중 유연근무제의 우선적 정착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폭악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주민자치방식으로의 사업방향 전환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차 박사는 “우리가 살펴봐야할 것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부모들의 삶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희망하는 생활양식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면서, “양적 팽창과 성교지향의 일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전세대와 달리, 부모역할의 책임감, 경쟁을 탈피한 자녀양육방식, 자살에 대한 성찰, 자아성취,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집단적 경향이 짙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관주도의 단기성 성과를 압박하는 방식의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모와 시민을 문제해결의 정책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가는 파트너십 관계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 가평군 신천지 기념관 건립 반대에 힘 신기로

홍계환 목사 “임원회에 알려 적극 협력하겠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기념관 건립 저지 운동에 힘쓰고 있는 가평군기독교연합회(회장 송용섭 목사)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 목사)는 지난 7월 4일(수) 가기연 이단사이비(신천지)대책위원회 총무 민동원 목사를 만나 현 실태를 청취하고 이만희 기념관 건립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홍계환 위원장과 서기 이광원 목사, 심우영 목사, 박명희 목사를 비롯해 신천지 피해자 모임 최병민 목사가 함께했다.

가기연 이단위 총무 민동원 목사는 “신천지가 청평에 6600평 부지를 확보하고 100억원을 들여 전쟁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만희 기념관을 짓는 것이 목적”이라며 “청평 인근에 이만희씨의 집이 있어 이곳에 그들의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기연은 시민들과 협력해 신천지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가평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만희 기념관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신천지가 청평교회 앞에서 한기총과 CBS를 비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국신천지파헤치연대 부모들과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천지가 매입한 부지 앞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기념관 건립 결사 반대’, ‘군수님 우리의 주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군의원

님 우리의 청평을 신천지로부터 지켜주세요’ 등의 현수막이 내걸려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계환 목사는 “현장에 와보니 가기연 목사님들과 시민들의 수고가 그대로 느껴진다. 한기총은 가기연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단 교회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며 “한기총 임원회에서 가평군 상황을 알리고 가기연과 힘을 모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막아야

7월 14일 서울 한복판 시청광장에서는 ‘위어분화축제’가 열리게 된다. ‘위어분화축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시의 배려(?) 속에 아주 떳떳하게 치러진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동성애와 종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헌법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모든 정부 부처가 시행해야 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으로서 법무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의 심각한 피해를 감추고, 동성애를 보호해야 할 인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헌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본권에는 ‘국민’ 대신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로 교체하였다.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똑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모든 정책과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들의 도적으로 붙여놓고 있다. ‘모든 사람’ 대신에 ‘모든 국민’이란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인권정책을 만드는 나라는 대부분 인종간 갈등이 있었던 나라이거나 아시아 아프리카 후진국에 속한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국가인권정책을 만드는 나라는 5개 국가에 불과하기에, 후진국형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2017년 10월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후에,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려 18차례나 비공개회의를 가지면서 당초 기본계획을 크게 수정하였다. 이러한 은밀한 수정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본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력 확고해야

세계적 관심 속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역사적인 회담은 모양만 요란했지 회담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아니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을 다시 방문하여 북핵 협상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비핵화는 커녕 지금도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앞뒤 없는 농간에 속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를 ‘정상 체제’로 공인하고,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로 홍보해준 것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불안까지 야기한 셈이 되고 말았다.

북핵 폐기 협상은 실질적 진전은커녕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은 폐쇄와 함께 오히려 수개월 간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렸다고 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1년 내 해

체’ 방안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면, 한·미 동맹보다 대북 협상을 우선시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ICBM) 위협 제거에 집중할지도 모른다.

국제정세는 이렇게 한지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한·미 연합 및 국군 단독 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남북 경제협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핵의 위협에서 아무런 보장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 등에 합의했다.

이뿐 아니라 도로, 산림 분과회의도 열려 마치 총체적 파주기에 투신하는 양상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런 무조건적의 경향은 유엔제재에 악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폐기 의지를 허무는 악순환을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력을 확고히 하고 대가 없는 결코 압박조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요한복음 4:27-54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고,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기에 성령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어 연결되어야 교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은 선악과 불순종 때문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인간이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던 인간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어떤 자가 마땅할까요? 누가 여호와와 성산에 오를 자일까요?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입니다(시24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논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공간을 초월하시기에 항상 이때

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라 기다렸고, 사마리아 여인도 논리적 시간개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말한 그가 바로 나라고 하셨습니다. ‘예고예미’ 천국을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로 말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확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내 양식이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누가 양식을 주었을까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행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육체가 먹는 양식이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영적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예배를 자기의 삶에 실천하였습니다. 여인은 물동이(육적예배)를 버리고 영과 진리(영적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일시 2018년 8월 27일(월)~8월 28일(화) 1박2일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031-298-3739)
대상 전국 여교역자국
문의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계좌번호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회비 일만원(접수시 입금)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 에 4:14 -

2018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8월 27일(월)		8월 28일(화)
	개교회에서 → 전원성전으로	7:30~8:30	아침식사
		9:00~10:00	폐회예배 → 석모도 출발
13:00~14:00	접수	13:00~14:00	점심시간
14:30~16:00	개회예배 조용목 목사	14:00~16:30	자연속으로 (석모도미네랄온천)
16:30~18:00	기도회 1-임웅재 목사	16:30	집으로 교회로
18:00~19:30	저녁식사		
20:00~22:00	기도회 2-고운 목사		
22:00 이후	자유시간		

준비물 : 세면도구, 회비 일만원 접수시 수납

♡ 모시는 글
 할렐루야!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주의 이름으로 교단산하에 속한 모든 여교역자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여교역자국을 은혜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올해도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를 1박 2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총회장님 그리고 고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뜨거운 기도회와 석모도에서의
 친교로 영육간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부디 여교역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영육의 회복과 힐링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 올림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별영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문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침례교회 조은주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일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복음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영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시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기교회 정예스더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임동교회 이경자 목사B	풍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생명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혜시바 목사	대창산기도원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충주지방회 지부장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라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인천지방회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명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숙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중산교회 정복혜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